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9호 【루게 제24337호】 주제102(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10월 15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 동지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의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창작가, 예술인들, 교원, 학생들, 평양시민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주조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극장에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인 빠벨 오브싼니꼬브와 악단의 행정지배인 나탈리아 이와노브나 세묘노바가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관현악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로씨야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잘 보여주었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것을 축하하여 빠벨 오브싼니꼬브가 창작한 합창과 관현악 《별들을 향하여 앞으로》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배우들이 우리의 사상감정에 맞게 잘 형성한 우리 나라 노래 《불타는 소원》, 《동지애의 노래》가 무대에 올라 공연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였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 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보아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조로 두 나라 친선관계발전에 기여하고있는 관현악단의 공연활동을 평가하시였다.

빠벨 오브싼니꼬브 단장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오신데 대하여 악단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로의교관계설정 65쪽에 즈음하여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나라에 온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은 공연무대에 합창과 관현악 글린까작 곡 가극 《루솔란과 류드밀라》를 주제로 한 명곡목음, 녀성독창

《로씨야의 하늘을 날며》, 남성독창 《오 귀염둥아》, 녀성독창과 무용 레가르작곡 경가극 《유지따》중에서 《유지따의 노래》, 혼성2중창 《모스크바》, 무반주합창과 남성독창 《넓고넓은 초원에서》, 합창과 관현악 《갈린까》, 《만발하라 나의 대지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울렸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로씨야인민의 열렬한 사랑과 전통적인 생활풍습, 민족적정서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공연이 끝난 후 관현악단의 지휘성원들을 만나시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성원들, 평양시민들과 함께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10월 15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
는 로씨야 21세기
관현악단 성원들,
평양시민들과 함께
모란봉악단과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
공연 《조선로동당
만세》를 관람하시
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공연이 끝난 다음
로씨야 21세기관현
악단 단장 겸 수석
지휘자인 빠벨 오브
싼니꼬브와 악단의
행정지배인 나탈리
야 이와노브나 세묘
노바를 다시 만나주
시였다.

빠벨 오브싼니
꼬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
단의 공연을 보여주신
데 이어 자기들을 부르
시여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을 함께 관람
해주시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
를 울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
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
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
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동
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와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
지휘자인 빠벨 오브싼니꼬브,

악단의 행정지배인 나탈리야
이와노브나 세묘노바가 자리를
함께 하였다.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여성중창
《조국찬가》, 경음악과 노래편곡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
여》,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여성6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기악과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여성독창
《나의 길》, 경음악 《내 삶이
꽃피는 곳》, 여성독창과 방창

《조국과 나》, 현악 4중주
《10월입니다》, 여성독창 《나래
치라 선군조선 천리마여》, 여성
5중창 《라오르라 우등불아》,
관현악과 남성합창 《우리의 총창
우에 평화가 있다》, 여성중창과
합창 《사회주의 지키세》, 혼성
합창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 종곡 《조선로동당
만세》의 종목들이 울렸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약동하는 젊음으
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역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
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세차게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
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그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
창단의 합동공연을 보면서 최상
급의 공연, 박력있고 힘과 기백
이 차넘치는 정말 훌륭한 공연
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두 나라 예술인들이 합동공연
도 진행하고 교류도 많이 하여
인류의 문화예술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한껏 넘쳐나는 대동강반의 새 모습

최상의 수준에서 희한하게 꾸러진 문수물놀이장 준공식 진행

【평양 10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수도 평양에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인 문수물놀이장이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서 준공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미래관에 떠받들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새로 건설된 대규모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은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문명하고 행복한 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인민의 문화휴식터이다.

10만 9,000㎡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에 건설된 문수물놀이장에는 각종 물미끄럼대와 수조들로 꾸러진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문수기념회복원, 실내체육관 등 인민들이 사계절 물놀이를 즐기며 휴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그쯘히 갖추어져 있다.

평양의 자랑을 더해 주며 일떠선 세상에 보기 드문 문수물놀이장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하는 어머니당이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안겨 주는 또 하나의 은정어린 선물이다.

21세기 문명개화기를 열어 나가는 우리 당의 정책적인 명도밑에 문수물놀이장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그처럼 마음써 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기와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현대적으로 건설된 문수물놀이장 준공식이 15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모셔져 있었다.

준공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일심단결》, 《결사옹위》라는 구호와 글발들을 드러운 대형 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김정일에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부강조국건설에 힘차게 떨쳐 나서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연설자는 모두다 당의 명도밑에 사회주의문명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김기남동지, 로두철동지와 문수물놀이장건설에 참가한 단위 지휘성원들, 일군들이 준공테이프를 높이고 섰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노래주악이 울리는 속에 문수물놀이장을 리용하게 될 청소년학생, 근로자대표들, 물놀이장을 건설한 군인대표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 문경덕동지가 준공테이프를 끊었다.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려 퍼지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준공식장상공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문명국의 주인, 향유자로 참된 삶을 누리자는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 자랑할만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의 여러곳을 돌아다니다 돌아와 보았다.

참가자들은 실내물놀이장의 휴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천연색석교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올리며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박봉주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문경덕동지, 로두철동지와 당, 무력, 정경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군인건설자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함께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 부부들과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청되었다.

준공식은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당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명도밑에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지향해나가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을 준공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현대적인 물놀이장을 안겨줄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발기하시였으며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선군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 끝낼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의 천연색석교립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으로부터 시공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며 물놀이장의 겨울철보호대책을 세우고 물놀이기체들을 마련해주는 문제와 인민들에 대한 봉사사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면서 물놀이장건설을 정력적으로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문수물놀이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인민군인들의 결사판철

의 정신과 투쟁기풍이 안아올린 창조물이다.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인민사랑의 뜻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불타는 총정과 일당백의 공격속도로 건축공사와 각종 설비조립을 립체적으로 힘있게 내밀어 방대한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불과 9개월동안에 완공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편단심 당을 따라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쓰고살면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인민의 행복도 조국의 무궁한 번영도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판철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마식령수도》창조의 불길을 새차게 지퍼올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문수물놀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으로 봉사활동을 잘하고 모든 시설들을 애호관리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인민사랑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더욱 뜨겁게 가닿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인들은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단숨에 해체건 그 정신,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김으로써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본래를 남김없이 떨쳐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홍잡물떼없이 꾸러진 각종 물놀이수조, 한증탕, 샤워실, 운동실, 실내체육관, 편의봉사시설 등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 베푸시는 은덕이 얼마나 뜨겁고 크나큰가를 온몸으로 절감하였다.

그들은 모든 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문수물놀이장에서 마음껏 웃고 떠드는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기쁨넘친 모습에서 인민의 리상과 모든 꿈이 실현되고 사회주의부귀영화가 꽃피는 강성국의 래일을 확인하였다.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도 희한한 물놀이장을 돌아보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중시정치아래 사회주의문명국가건설구상이 위대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는데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로동당시대 행복의 선경을 펼쳐며 솟아난 문수물놀이장은 절세위인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역사를 길이 전하며 인민의 랑만넘친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를 세세년년 울려갈것이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한껏 넘쳐나는 대동강반의 새 모습

최상의 수준에서 희한하게 꾸러진 문수물놀이장 준공식 진행



현실은 제2의 10월민주항쟁을 부르고있다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10월민주항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34년이 되었다. 10월민주항쟁은 포악한 《유신》독재통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와 결합한 식민주주의의 파쇼통치밑에서는 정치적자유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도 지켜낼수 없었다를 뼈저리게 절감하였기에 즉흥도 두려움없이 분명히 떨쳐일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반 《정부》시위투쟁을 발단으로 시작된 항쟁의 불길은 삼시에 마산과 서울, 대구와 청주, 진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로 퍼져 대중적인 항쟁으로 번져갔다. 지금도 우리 겨레의 귀천에는 폭압을 박차고 투쟁의 거리를 펼쳐나와 《유신헌법》의 철폐와 독재 《정권》의 퇴진, 언론과 학인의 자유를 쟁취하며 악명높은 《유신》독재의 원흉을 파멸에 몰아넣던 그들의 항쟁참가자들의 합성이 정경희 메아리치고있다. 10월민주항쟁은 아무리 포악한 독재자라도 인민들의 지향과 힘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인민을 등진 독재세력에게는 비참한 종말이 차체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았고 그것은 오직 결연한 투쟁으로만 쟁취할수 있다. 이것은 10월민주항쟁용사들이 피로 새긴 력사의 진리이다.

10월민주항쟁이 있는 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지나갔으나 아직도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항쟁용사들의 넋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강점과 지배, 괴뢰통치세력의 반역통치와 관련된다. 남조선에서 현 괴뢰정권이 틀어쥐고나와 파쇼독재

가 있고 민주화된 세상에서 인간의 권리를 향유하며 전쟁위험이 없는 통일된 조국에서 마음편히 살아보려는 인민들의 념원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현 괴뢰정권자는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국성스럽게 부르짖으면서 《유신》독재를 되살리고있으며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면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악랄하게 도전해나가고있다.

침시사대적이며 매국적인 현 괴뢰정권세력은 표류만 한 민족적자존심이 미국을 할애비로 섬기면서 상층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고있다. 괴뢰들이 이미 2015년까지 돌려받기로 되었던 《전사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무한정 내맡기려고 획책하고 있는 사실과 더 많은 미군유지부담금을 내면서까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영구히 불어두려 하는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괴뢰당국의 침시사대적동맹을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발전도 완전히 억제되고있다.

괴뢰보수세당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해 《경쟁자별》이나, 《국민행복》이니 하면서 저들이 집권하면 생활난도 고동반는 군요인민들을 위해 그 무엇을 할것처럼 술한 《공약》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금 괴뢰집권세력은 《경쟁제민주화》와 《국민행복》은 고사하고 약속했던 해고노동자들에게 대한 복직과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의면하고 있다. 지금 각계의 커다란 반발과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기초연금》공약과 같은 한층도 못되는 제법들의 리익을 여전히 옹호하면서 철대다수 군요인민들의 리익을 무참히 짓밟고있는 현 집권세력의 반인민적정체를 날같이 꼬박하

고있다. 《유신》독재시기 군사파쇼당은 그 무슨 《산언록》의 미명하에 로동자들의 피와 땀을 악착스럽게 짜내어 제법들의 배를 불리워주었다. 그리고 로동자들이 생존의 권리를 주장하며 파업투쟁에 일떠서면 가차없이 탄압말살하고 추세를 채워 감옥으로 끌고갔다. 지금의 남조선현실이 그 배를 방불케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유신》의 부활은 현 괴뢰당국의 등장으로 나날이 현실화되고있다. 괴뢰당국자는 집권하자마자 《유신》독재시대를 재현하기 위해 조직에 군부장제들을 줄줄이 내세우고 《보안법》을 더욱더 사납게 휘두르며 인민들에 대한 파쇼폭압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최근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배격과 항의규란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괴뢰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과 통합연방의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 그에 따른 광란적인 《중북세력결격》 소동은 남조선사회가 과거의 《유신》독재세대로 되돌아간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은 《공약한 《공안》 통치에 민주주의와 의정적 리익을 잃어가고있다.》고 절규하면서 보수세당의 《유신》독재부활행동을 준렬히 폭로탄파하고있다.

북남관계가 파국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극도로 고조되고있는것도 《유신》독재시기의 그대로서이다.

현 괴뢰집권세력은 극악한 대결정세를 자작한다. 이 지경에 있는 길로는 《대화》니, 《신회》니 하고 떠돌아대지만 그것은 저들의 대결정세를 분철하기 위한 한낱 시사구어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들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집요하게 가로막고있다.

괴뢰들은 반동열적인 《원칙론》을 들고나와 북남대화분위기를 파탄시켰고나와 외세와 작당하여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련이 벌려면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그 무슨 《대화있는 대결》을 부르짖으면서 《대화》의 간판뒤에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피는이 되어 날뛰는 《유신》독재자의 망동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인 삶과 민주주의적리익에 대한 요구, 온 겨레의 통일열망을 여지없이 짓밟는 극악한 민족반역집단으로서의 현 괴뢰정권의 추악한 정체는 날같이 드러났다.

남조선에서 자주로운 파쇼독재의 몸서리치는 력사는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자주, 민주, 통일로 향한 대세의 흐름과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파쇼독재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괴뢰당국의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10월민주항쟁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기개와 항거정신을 적극 살려 반파쇼민주화투쟁을 파죽이 걸러나가는것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독재자들은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단결되고 완강한 투쟁만이 독재 《정권》에 종국적파멸의 철추를 내릴수 있다. 이것은 10월민주항쟁이 가르쳐준 교훈이다.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폭력으로 억누르면서 오만하게 날뛰는 현 괴뢰집권세력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의 불길에 세계가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승리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곱할없이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것이다. 라 설 하

사대매국, 북침전쟁행각의 치마바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다고 박근혜가 해외에 나가서까지 동족대결의 악담을 쏟아내고있어 만사사람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그는 동남아시아행각중 어느 한 일간지의 회견에서 《북의 핵개발 등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 하겠다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북이 핵을 포기》 하도록 《한목소리로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떠들었다. 나중에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심히 의욕하면서 《핵개발》이니 뭐니 하고 우리의 전략적리익을 또다시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그는 미일정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들을 만나서는 《비핵화에는 공동의 목표와 원칙》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조치》니 하며 외세의 반공화국핵발발에 맞장구를 치고 저들의 대결정책인 《신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였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옥소리뿐이라고 동남아시아행각기간 괴뢰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전 반부패의 반공화국공조를 강화하여 《핵포기》야망을 실현하며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여 동족을 고평압살하기 위한 반역적부러움들을 만나서는 《비핵화에는 공동의 목표와 원칙》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조치》니 하며 외세의 반공화국핵발발에 맞장구를 치고 저들의 대결정책인 《신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였다.

우리의 당의 전략적리익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안아오는 가장 정당하고 인민적인 로선이다. 우리 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엄을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현실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배후로 지지하고있다. 우리가 틀어쥔 핵보검은 자기를 질 패선수단이지 우리의 무장투쟁을 노리는 대화나 협상태우에 올려놓고 온갖 흉물스러운 결고 아니다. 자기 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한 우리 인민이기에 더 좋은 레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창조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그런데 괴뢰정권자는 아직도 우리의 이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보지 못하고 《핵포기》 망상을 사로잡혀 허둥해고있다. 그가 《일관된 신호》니 뭐니 하며 비리침을 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조치》 따위의 본질도 못 찾은 황당무계한 수작만 늘어놓은것은 지금 사람들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민족의 존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인민의 정신크이 어떻게 폭발하고있는지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너털대는 괴뢰집권자의 꼴이아말로 가련하기 그지없는것

이라 해야 할것이다. 이번 동남아시아행각기간 괴뢰집권자는 《북의 핵개발 등 도발》에 대한 그 무슨 《단호한 대응》에 대해 떠벌임으로써 북남관계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와 한사코 엇설 흉악한 속심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지금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위업의 진도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 북남관계의 파국적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그것은 모처럼 북남관계에 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함께 북침핵전쟁연습을 발판으로 감행하면서 대화를 대결에 악용한 괴뢰보수세당의 망동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표시이다. 그러나 보다시피 괴뢰당국자는 저들의 반동열행동에 대한 표류만 한 반성이나 죄의식도 없다. 도리어 《단호한 대응》이니 뭐니 하는 호전적폭언을 서슴없이 켜치면서 북침전쟁의 도화에 불을 달 부분별한 흥심까지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이것은 괴뢰매국당에 북남관계에 위기에에서 건질 생강이 전혀 없으며 추후하는것은 오로지 북침핵전쟁 도발이라는것을 명백히 뽐내주고있다.

만일 이 땅에서 핵전쟁의 불길기 치솟는다면 무약처럼 쏟아지는 우리의 무사비한 불소나기를 미국의 핵우산도 막아주지 못한다는것은 알고 헤맬것이 좋을것이다. 우리의 전쟁적력에는 과대망상초에 빠져 쓸데없는 자기를 버리는자들에 비해 도배를 볼수 없을것이다.

어찌구무없는것은 괴뢰집권자가 대결악담을 실재없이 내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들이 《대화》의 창》을 열어서 《신회》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 하고있다고 노족을 피운것이다. 이아말로 등치고 배반자는 수작이다.

문득내 괴뢰매국당에게는 대화대방인 우리의 존엄과 체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 미국의 핵행악과 핵전쟁폭력까지를 련이 끌어들이며 북침핵전쟁도발에 미쳐들어가는 그것도 《신프로세스》인가. 괴뢰들의 망동은 북남사이의 신뢰를 쌓는것이 아니라 오로지 불신과 대결을 조장정화시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창》이니, 《신회》니 하고 거러걸림이 떠드는것은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는 《신회》의 간판을 내건 동족대결망고 이미 썩바람 오물로 탁인적허 그 누구도 후속시킬수 없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은 쓰레기화로 버려지거나마련이다. 그런즉 괴뢰당국자도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것이다. 최 철 슨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68돐을 맞아 10월 10일 나호드카 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조로조선총영사관 최 부회장, 나호드카조선민중문화사치회 회장, 바르체잔스키 조선민중문화사치회 회장을 비롯한 동포들 그리고 총영사관 명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산에 함께 계시는 름상악에 삼바구니와 꽃 다발들을 진정하고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화담회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백전백승의 강령의 당으로 강대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수령과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당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건설업적을 칭송하였다. 오늘 경에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하에 조선은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 * * 조선로동당창건 68돐과 10.4선언발표 68돐에 즈음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행되는 동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포신문 《통일》이 10월 특집하였다. 신문은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맞아 한 다》라는 제목으로 우즈베키스탄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가 진행한 기념행사소식을 소개하였다. * * * 조선로동당창건 68돐과 10.4선언발표 68돐에 즈음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행되는 동

식량안전과 보장을 위하여

오늘은 세계식량의 날이다. 식량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로부터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는 기구창립일인 10월 16일을 세계식량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날을 제정한 목적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 름속에 식량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세계적인 식량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그 방도에 관한 국제적의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있다.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는 해마다 이날을 맞아 식량문제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기하고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그에 맞는 다양한 행사와 선전활동을 벌리고있다. 올해 세계식량의 날의 주제는 《식량안전과 영양을 위한 지속적 농업보장체계》이다. 최근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가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계획은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는 사람들의 수가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8억 4 2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식량의 안전과 보장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식량생산량은 수요에 따라서 지 못할것이라고 한다. 분석가들도 농업생산의 장성속도 가 따지고 농산물에 의거한 생활물류생산이 늘어나고있기 때문에 식량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것으로 보고있다. 생산물의 부족과 가격과등은 세계식량안전을 위협하고있다.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는 이미전에 《중요식량생산국들과 소비국들이 충분한 식량예비를 갖추지 못하고있는 이상 가격과동이 일어날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있다. 식량예비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세계식량가격은 15~40% 올라갈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식량안전과 보장을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농업생산증대와 식량

국제형사재판소의 부당한 처사 단죄

모잠비크대통령 아르만두 에 발리우 게바우가 10일 우간다 방문중에 한 발언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감행되는 엄중한 범죄행위를는 외면하고 아프리카인들에게만 범죄자의

국제형사재판소의 부당한 처사 단죄

감투를 들씌우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아르만두는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요구한다고 하여 아프리카인들을 남가죽잡지 아니라 그들의 범죄여부를 판단, 결정하기 위한 지역자체의 재판소를 가져야 할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뿔스까

뿔스카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있다. 나라이름은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실지 뿔스카는 드넓은 벌이 많은 나라이다. 뿔은 뿔스까령의 대북부를 차지한다. 기후도 농업에 유리한것으로 하여 유럽의 주요한 목장지대로 알려져 있다. 농업은 프러시에서 다섯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해마다 석탄생산이 늘어나고있다. 연료동력공업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 석탄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탐사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새로운 광물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석탄생산의 물질기술적조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히 매장되어있다. 특히 석탄, 류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협조

나이지리아와 브라질이 8일 쌍무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리는데 대한 항의각서를 채택하였다. 같은 날 튀니지와 리비아는 교통신수분야에서 전문가교류와 기술적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노종양을 제거할수 있게 하는 레이저기술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노종양을 제거에 정확히 발견하여 제거할수 있게 하는 새로운 레이저기술을 개발하였다. 《유도라만산관철미경정사법》으로 명명된 새로운 기술은 비침습성레이저빔을 뇌조직에 쏘인 다음 발산되는 신호를 검출한다. 이 신호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연구사들은 조직의 세포구조영상을 확충할수 있다고 밝혔다. 뇌조직과 종양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리용하면 정상세포들 속에 끼여있는 종양의 가장자리까지 매우 정확히 확인하여 수술사의 의사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일동맹의 침략적성격은 가리울수 없다

미일동맹의 침략적성격은 가리울수 없다. 미일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이루고나아가는 전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일이 개정하려고 하는 《방위협력지침》에서 기본은 유사시의 협력이며 여기에서 핵은 조선반도유사시의 협력이다. 이것은 미일이 협력하여 새로운 조선전쟁을 일으켰다는것을 목표로 하여 움직이고있다. 미일동맹강화는 우리 나라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조선된 정세는 우리 인민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의 모든 평화호인민들이 미일동맹강화행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연결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리 학 남

미일동맹의 침략적성격은 가리울수 없다

미국은 미일동맹강화를 통해 저들의 힘을 보강하고 일본을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에 적극 협력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일본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있다. 일본은 말하면 말대만 군사적지배력과 과거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한 전적을 가지고있다. 미국은 이전부터 이것을 중요시하여왔다. 미국이 폐망한 일본군주주의체제를 보존하고 재생시킨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제생강화된 일본군주주의체제가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불완전 목적을 손쉽게 달성해보려 하고있다. 오존대 일본본방을 동맹관계로 단단히 엮어내어 그들에게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길목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여주는 것이다. 결국 미일동맹강화는 지역나라들에 대한 일본군주주의체제의 재건과 미일공통의 군사적침략을 감행하려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에 편승하여 어떻게 하나 제침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일시적 동맹강화를 맺고나가고있다. 현 정세를 신 이후 그것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일본방위자들은 로물코프 해의 맹행을 제창하고있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들을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있다.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며 집단적자위권행사와 선제타격전략에 대해 운운하고있다. 일본방위들은 이렇게 해야만 아시아에서 주도적역할을 할수 있다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미일동맹의 침략적성격은 가리울수 없다

그들이 힘으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을 도발로 제침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다. 미일동맹강화책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군사적위기로 지역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바로 미일동맹강화책동의 엄중성과 위험성이 있다. 미일동맹은 자기의 침략적정체를 더욱 드러내보이면서 침략전쟁의 위험한 계도를 따라 맹렬히 질주하고있다. 이번엔 미일사이의 모의에서 기본방안은 《일미방위협력지침》의 제2토이다. 1979년에 제정된 《일미방위협력지침》은 일본명도박에서 미일공동군사행동을 합법화한 전쟁문서이다. 미일은 이것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안정력에 맞게 일본방위 《자위대》의 역할을 높이고 미군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것을 골자로 하여 수정하려 하고있다. 만일 이에 따라 《일미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면 《자위대》는 미군과의 《협력》의 구실밑에 임의의 시기에 해외군사활동에 빠져서 나설수 있게 된다. 일본당국자들은 이미 그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일본방위성은 《일미방위협력지침》 제2토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차관을 책임자로 하는 검토비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일본이 미국의 침략기지로 전변되고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더욱 확대된다는것을

미일동맹의 침략적성격은 가리울수 없다

미일동맹의 침략적성격은 가리울수 없다. 미일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이루고나아가는 전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일이 개정하려고 하는 《방위협력지침》에서 기본은 유사시의 협력이며 여기에서 핵은 조선반도유사시의 협력이다. 이것은 미일이 협력하여 새로운 조선전쟁을 일으켰다는것을 목표로 하여 움직이고있다. 미일동맹강화는 우리 나라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조선된 정세는 우리 인민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의 모든 평화호인민들이 미일동맹강화행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연결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리 학 남